

| 결과 | 덴티움 포럼 부산/대전/대전/서울/광주

## 학문적 흐름·신제품 체험 ‘인산인해’

치과의사들의 임상정보와 술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최신 학문적 흐름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별 ‘Dentium forum 2012’가 지난 6일 부산포럼을 시작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사진).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알찬 커리큘럼으로 등록시작과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부산, 경남, 울산의 각 지역 치과의사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 아래 친목 도모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부산포럼의 연자로는 김성훈 교수(서울치대) CAD/CAM 시스템을 이용한 치과보철수복치료를 포함해 ▲정성민 원장(웰치과의원)의 Conver-



gence technology with development & Application of biomaterials가 Session I에서 진행됐으며, Session II에서는 ▲한승민 원장(가야치과의원)의 성공하는 GBR, 실패하는 GBR ▲허중보

교수(부산치대) 가철성 의치의 효율적 설계 및 임플란트의 활용의 순서로 강의가 마무리됐다.

덴티움은 올해 포럼에서 Bone과 Digital Dentistry 주제의 적절한 조화로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두루 섭렵할 수 있었으며, 연자들의 실질적인 임상 팀이 공개돼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도를 얻었다.

또 Dentium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강의장 외부 핸즈온 부스를 한층 강화해 강의장 내·외부 모두 인산인해를 이뤘다.

Dentium forum 2012는 10월 13일 대전포럼, 20일 대구포럼, 27일 서울포럼, 11월 10일 광주포럼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각 지점별로 사전등록 및 문의가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 및 커리큘럼은 덴티움 홈페이지(www.dentium.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및 등록: 대전포럼: 070-7098-9147, 대구포럼: 070-7098-9151, 서울포럼: 070-7098-5577/5588, 광주포럼: 070-7098-9148.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 결과 | 미국치과임플란트학회 제61차 학술대회

## 심재현 원장 AAID 중심에 서다

미국치과임플란트학회(AAID)가 ‘Debating the Options for Practical Solutions’를 주제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의 힐튼 호텔에서 제61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미국 전역에서만 3000여명의 치과의사들의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Leonard Linkow, Paulo Malo, Carl Misch, Maurice Salama, David Garber, Hilt Tatum 등의 저명한 연자가 초청돼 4일 동안 임상 치료법 위주의 역동적인 강좌를 토론 형식으로 펼쳤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심재현 원장이 초빙돼 한국을 대표하는 Global Symposium 연자로 나섰다.

61년 역사의 AAID 학술대회에 한국 치과의사 최초로 주연자로 초청된 심재현 원장은 지난 5일 ‘상악동막 천공의 처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심재현 원장은 지난해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1만2000여명)를 보유한 임플란트학회인 Japanese Society of Oral Implantology(JSOI)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임플란트 전문가로 선정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41차 JSOI 학술대회 연자로 초빙된 바 있다.

또 지난 2007년부터는 심재현 원장은 AAID가 후원하는 임플란트 인정의 연수프로그램인 한국맥시코스의 디렉터로, 3년 전부터는 일본구강임플란트학



심재현 원장

회(JSOI)가 인정하는 임플란트 인정의 연수프로그램의 강사로 활약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술대회 이후 열린 AAID 총회에서는 한국맥시코스를 수료한 이건영, 오세웅 원장 등 총 12명의 한국치과의사 및 5명의 일본치과의사가 AAID 인정의로 지명됐다.

한국맥시코스는 AAID가 후원하는 13개 맥시코스 중에서 가장 높은 인정의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60여명이 AAID 인정의 및 지도의로 지명됐다.

또 AAID는 한국의 소비자를 위해 AAID 임플란트 인정의를 소개하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임을 발표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 회원들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화상회의 형식의 시험 시스템이 거의 구축돼 빠르면 2014년부터 이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라고 한국맥시코스 측에 전했다.

한국맥시코스 측은 “2년 후에는 한국 회원들이 미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에서 AAID Part II 구술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 결과 | 지오덴트 2012 실전 심미보철 심포지엄

## “실전 심미보철 속시원히 해결”

실제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보철 관련 지식을 치과 의사와 치과기공사의 관점에서 비교 제시한 세미나가 열렸다.

(주)지오덴트(대표이사 강현준)가 주최한 2012

실전 심미보철 심포지엄이 지난 7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성공하는 심미보철, 실패하는 심미보철’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250여명이 참석해 각 영역별 보철진료 및 보철물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김덕중 실장이 ‘왜? 꼭! Provisional이어야 하는가?’란 주제로 포문을 연 강연에서는 보철물 제작과 관련된 노하우와 함께 각 재료별 특징을 자세히 소개해 참가자들 스스로 자신의 테크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찬권 원장의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가 알아야 할 생보철, 再보철’ 강의에서는 각 보철진료 시 임상에서 차별화해 주의해야 할 부분을 짚어줬다.



지오덴트가 주최한 2012 실전 심미보철 심포지엄이 지난 7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열렸다.

또 이동현 원장이 ‘내가 생각하는 임플란트 수술 및 Emergence profile’을 주제로, 박경식 소장이 ‘Remake! 네 탓? 내 탓?’을, 이승규 원장이 ‘강남스타일 심미보철’을 주제로 강의를 펼치며 심미보철과 관련한 임상 의의와 치과기공사로서의 노하우를 공개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한 참석자는 “실제 현장에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듯 한 세미나였다. 특히, 참가자들이 궁금증을 즉석에서 시원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다”고 밝혔다.

지오덴트 측은 올해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임상적인 지식을 유저들에게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간다는 계획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